

# 태풍 '카눈' 복상 예상... 농가 피해줄이려면

### 작물 미리 따기·과수 나뭇가지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 등...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9일부터 태풍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과수는 지금 수확해도 되는 복숭아,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은 태풍이 오기 전 서둘러 따고, 수확하기가 어렵다면 나뭇가지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 방풍망을 설치한 과수원은 찢어진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수하거나 정비한다.

벼는 논물을 일시적으로 깊게 대어 벼 쓰러짐을 예방하고, 논두렁 흙이 강한 비에 쓸리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주는 등 조치한다.

밭작물은 재배지의 원활한 물 빠짐과 습해 예방을 위해 물길(배수로)을 깊게 설치한다. 개화기 전 못자란 콩은 순지르기 작업을 해 쓰러짐을 예방한다. 고추, 참깨는 태풍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수확하도록 한다.

시설 온실은 내부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물길을 정비한다. 골재와 비닐이 밀착되도록 끈으로 단단히 묶고, 찢어진 곳은 보수한다. 인삼은 재배지 주변의 물길을 살펴 잡초나

퇴적물 등이 있으면 치운다. 해가림 시설이 손상된 곳이 없는지 살피고, 설치된 버팀목과 방풍망을 점검조치한다.

축사는 오래된 축사 지붕은 강한 바람에 들뜨거나 심하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손본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축사 내 누전이 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시설을 점검한다.

농업기계는 농업기계는 침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 소형 농업기계는 덮개를 씌워 최대한 물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농업인 안전은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태풍 이동 경로 확인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물고 잡감 등 영농활동을 자제한다. 또한, 마을 방송, 안전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해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 민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을 회관 등 대피소 위치를 알아둔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지성 과장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기 전에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사전 관리에 힘써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라며 "특히 농업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야외작업을 삼가 달라."라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8일, 6호 태풍 '카눈'이 북상예보에 따라 도내 주요 수리시설물과 사업현장 사전점검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김제 대화저수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태풍 대비 수리시설·현장 긴급 점검

### 농어촌공, 저수지 사전방류·배수시설 점검 등 사전 대비 철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8일, 6호 태풍 '카눈'이 북상예보에 따라 도내 주요 수리시설물과 사업현장 사전점검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저수지 점검과 사전방류, 배수장 펌프 주요수문 개폐 여부, 배수시설 정비 등 1,700개소의 수리시설물을 점검하고, 농촌유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91지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61지구 등 총 152지구에 대한 공사현장 안전조치 강화 등 긴급점검을 통한 선

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9일부터 비상특보상황에 따라 태풍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상황실 운영관리 철저 △비상근무자 정위치 근무 △배수장 적시가동 △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조치 등 태풍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까지 철저 대응 계획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전 직원은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욱기기자

## 농협은행, 범농협 통합 마케팅 서비스 'NH멤버스팟' 선보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 NH멤버스팟에서 신규 서비스 NH멤버스팟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NH멤버스팟은 범농협 계열사의 상품·이벤트·쿠폰 등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NH멤버스팟의 항아리(Pot)에 모두 담았다는 의미로, 농협 모든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고객은 NH멤버스팟을 통해 유용·금융 계열사 별 이벤트·쿠폰·

혜택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NH포인트를 사용해 범농협 계열사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NH멤버스팟 서비스 참여사는 농축협(상호금융), 농협물, 농협은행, NH농협카드,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이다. 고객은 해당 계열사 앱의 포인트 조회 메뉴에 위치한 전용 아이콘이나 배너를 통해

서 서비스에 연동될 수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NH멤버스팟 서비스를 통해 OPEN 배치가 달린 금융상품 가입 후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입 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5만명에게 NH포인트 5천점을 제공하고, 15명을 추첨해 △다인 청소기(3명) △폴딩바 2톤(7명)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 1644-72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기자



NH농협은행에서 선보이고 있는 'NH멤버스팟'. <사진=NH농협은행 제공>

## '달콤하고 맛있게' ... 농진청, 국산 용과 품질 높이기 나서

### 주요 용과 유전자원 열매 특성 분석... 농가 안정적 생산위해 '재배 지침서' 보급

비타민 B(B)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조절에 좋은 열매 과일인 용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용과는 외국산과 달리 생산지에서 소비자인 운송 거리가 짧아 더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산 용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재배 농가를 돕고자 주요 용과 유전자원의 열매 특성을 분석하고, 재배 지침서를 보급 중이라고 밝혔다.

용과는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2010년 재배면적이 12.8헥타르(ha)까지 확대됐으나, 현재(2022년 기준)

는 6헥타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는 초기 재배했던 속살이 하얀 용과의 당도가 낮아 재구매율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꺾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은 당도 높은 품종을 선호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흰색 과육보다 당도가 높은 붉은색 과육 유전자원 8종을 대상으로 꽃 피는 시기와 수확 시기, 열매 크기, 당도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붉은색과 분홍색 과육 용과의 꽃은 6월 중하순부터 피기 시작했으며, 수확은 7월 하순부터 10월 하

순까지 이어졌다.

열매 크기는 '아메리칸 뷰티'를 제외한 '피지컬 그래피티', '다크스타', '달라이트', '내추럴 미스틱', '귀우테', '퍼플 헤이즈', '대홍' 모두 300그램(g) 이상으로 나타났다.

당도는 '아메리칸 뷰티'가 14.3브릭스로 가장 높았고, '퍼플 헤이즈'와 '달라이트'가 각각 13.2브릭스, 13브릭스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대홍'의 당도도 12.3브릭스에 달했다.

농촌진흥청은 용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안정 생산 기술을 담은

재배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해 보급 중이다. 이 지침서에는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과 번식 방법부터 시기별 관리 요령, 탄저병, 과실썩음병, 총채벌레 등 병해충 증상과 방제 방법 등을 담았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사이트, 용과 재배 매뉴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기후변화와 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아열대 과일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김욱기기자



## 취약계층 물품지원으로 '행복나눔' 실천

### 정읍 신대인농협, 삼계탕·라면 등... 관내 72개 취약가구에 전달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황희중)은 지난 4일 행복나눔이 나눔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대인농협 행복나눔이 봉사자 20명이 참여하여, 삼계탕 라면, 계란 등 생필품을 관내 72개 취약가구에 전달하였다.

신대인농협은 2017년 '행복나눔이' 봉사단 구성을 시작으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곤나눔, 생필품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황희중 조합장은 이날, 무더운 날씨 속에도 행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전한다"며, 봉사자 여러분의 활동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